

##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탄력



활기 되찾은 '호남의 관문'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1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송정역 일대가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고속철역사 최초 예타 통과 ... 市, LH와 공동 64만㎡ 개발 체계적 재생 기대 ... 청년창업 지원·공공안심상가도 검토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 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 시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강제종료로 인해 무산된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측과 10월 초 협약을 맺고 시민편익시설 설치, 관문 경관 조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지정받은 것은 광주송정역이 처음이다.

광주송정역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옛 유형 구역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난

개발이 확산돼 체계적인 재생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실현되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 기능하고, 빛그린산단과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비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사업지구 내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좌초 위기에 있었으나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가 최종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이 고유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 건물, 환승통로, 택시 대기 공간 등 편의성 확보에 더해 건축물에 조형미를 가미하고 광주다운 콘텐츠를 보강할 방침이다.

또 광주송정역 주변에 청년창업지원,

소상공인 교육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1913공생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주민이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저렴한 임대료로 상가 제공)'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까지 지구 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토지보상, 손실보상 등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의 복합환승센터사업이 무산되자 300여원을 직접 투자해 주차빌딩과 편의시설 일부가 포함된 연면적 4만3500㎡의 주차타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를 찾는 분들이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송정역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집값이 미쳤다”

아파트 7개월 만에 5억 오르기도 ... 시, 합동단속팀 운영

광주시가 폭등하고 있는 광주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관련 광주지방국세청·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 다단계계약서가 만연하고 있어 최근 거래 실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곳곳에 고급 공공임대아파트를 조성해 아파트 분양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값 등등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남구와 광산구 등 광주 일부지역의 아파트 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직접 사례까지 들며 부동산 투기나 가격 담합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남구 H아파트의 경우 전용 114㎡ 기준 올해 1월 7억6000만원이었던 매물이 현재 12억원 넘는 호가로 7개월 만에 5억원 가량 상승했고, 같은 지역의 J아파트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아파트 매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공공연하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거래를 낮춰 세금 탈루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상대적 허탈감과 소외감을 주며,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며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특별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주에게는 실수요를 분석해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적정한지 분석하고, 현재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단속팀 구성을 위한 협의를 들어 있으며, 최근 거래된 아파트 가격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태풍 ‘솔릭’ 피해 66억 원

완도 보길 특별재난지역 건의

지난달 전남지역을 할퀴고 간 제19호 태풍 ‘솔릭’이 완도·장흥 등 전남에 66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컸던 완도군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쳐 ‘우심지역’ 지정될 전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군에서 입력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최근 중앙 합동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역 피해액은 66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벼 흡수(黑穗)가 발생 현상) 피해, 바다 낚시 악화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마감일을 지난 3일에서 10일로 일주일간 미뤘다.

사·군별로는 완도가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양식시설 555건, 수산생물 716건, 침수 810ha, 비닐하우스 4동, 주택 2동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장흥 8억원, 진도 6억원, 고흥 5억원, 해남 등 10개

시·군 16억원이었다.

사유 시설에서는 주택 15동, 수산 증양 시설 674곳, 수산생물 816건 등 모두 24억6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1곳, 항만 63곳, 관광지 12곳 등 모두 158곳 42억3800만원이었다.

피해 규모는 당초 100억원이 넘는 것이라는 예상에는 못 미쳤다. 자연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물량만 집계될 뿐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여가의 수산·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8억원 피해가 발생해 기준액(6억원)을 초과한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낙원 국무총리도 최근 보길면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지역 피해 규모 2.5배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일보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 장흥 실학자 존재 위백규 ▶18면  
 KIA 임창용 ‘더 높은 곳을 향하여’  
 - 퀴리티스타트·승리투스 노린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AMORE PACIFIC CORPORATION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p><b>•3만원 이상</b></p> <p>AP 종합6호 (소비자가 : 30,900원)</p> <p>AP 종합7호 (소비자가 : 35,900원)</p> <p>AP 종합8호 (소비자가 : 40,900원)</p> <p>미장센슈퍼보태니컬세트 (소비자가 : 36,900원)</p> <p>려 함빛도탈솔루션 (소비자가 : 36,900원)</p> <p>프레시팝 베이직세트 (소비자가 : 39,900원)</p>	<p><b>•3만원 이하</b></p> <p>AP 종합3호 (소비자가 : 16,900원)</p> <p>AP 종합5호 (소비자가 : 25,900원)</p> <p>AP 종합4호 (소비자가 : 21,900원)</p> <p>프레시팝 베이직세트 (소비자가 : 29,900원)</p>
--	--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라 권장 소비자가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영업부서로 문의주세요.**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사전예약기간: ~9/12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